



중·한 인터넷 민족주의의 실태와 언론의 역할



글. 저우위보(周玉波)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장

지난 5월 7일 중국 언론계 차세대 지도자 30명이 위원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및 ADR에 관해 소개하는 한편 저우위보(周玉波) 인민망(人民網) 한국지사장을 초청해 '중·한 양국간 분쟁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아래 기고문은 저우위보 지사장이 특강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

들어가며

중국의 인터넷 언론사인 환구망(環球網)은 2011년 12월 중국 네티즌을 상대로 '세계 각국에 대한 인상을 그리다'라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2011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가운데 총 20만 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했다. 그 중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한류(韓流, 편집자 주: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와 한류(寒流, 편집자 주: 찬물이 흐르는 부분)가 공존한다'는 다소 냉랭한 답변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17,702명의 네티즌은 한국에 대한 가장 깊은 인상으로 '역사표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자기 교만(7.3%)', '성형(6.6%)', '김치(6.1%)', '성격이 좀스럽다(6.1%)', '과격하다(5.6%)', '열등감(4.6%)', '민족주의(3.8%)' 등이 차례로 거론됐다.

중·한 양국은 육지로 연결된 나라가 아니지만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현실적 갈등이다. 큰 이웃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단오절이 중국 명절이나? 한국 명절이나?', '공자는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중·한 어

업 분쟁' 등 화제를 둘러싸고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불거지곤 했다. 이러한 온라인 논쟁 속에서 양국의 네티즌들은 이성을 잃어가며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등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발언과 행동을 보인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현실적으로 활발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자랑하며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한 양국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 필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간 중·한 양국 네티

존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점검하여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는 언론이 무슨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네티즌 눈에 비친 한국

사례1 단오절, 굴원(屈原) 및 쑹쯔(粽子)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소식이 중국으로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다. “단오절은 우리의 유산인데 왜 한국에게 등재할 권리를 뺏겼냐?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굴원(屈原,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시인으로 《離騷》(이소)를 지음)이 만약 저승에서 알게 된다면 한국의 한강에 가서 투신자살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인들이 구정을 쇠러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특허사용료를 낼 게 뻔하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한국이 중국을 이겼다’(2005년 11월 26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거나 ‘중국 전통이 한국에게 도둑질 당했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나’(2007년 12월 24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한 동안 네티즌들 사이에 번지는 혐한(嫌韓) 감정을 한층 더 부추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알아보면 한국의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사뭇 다른 문화적 의

의를 지니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을 전후하여 약 50여 일 동안 굿, 제사, 관노가면극(官奴假面劇) 등 다양한 민속 놀이와 기념행사가 벌어지는 대대적인 민속 축제이다. 이는 애국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해 단오 당일 날 쑹쯔(粽子, 종려나무 잎에 찹쌀과 대추 등을 넣어서 찐 중국 단오절 전통 음식) 먹기, 용선(Dragon boat)경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단오 풍습과 내용이 다르다. 더군다나 한국은 단오절이란 명절 자체가 아니라 단오를 지내는 일련의 향토적인 절차와 의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이다. 이 점은 한국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의 첫 마디인 “단오절은 원래 중국의 명절로 한국에 전래된 지 1,500여 년이 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의 단오절을 도둑질했다”며 한국인을 혐오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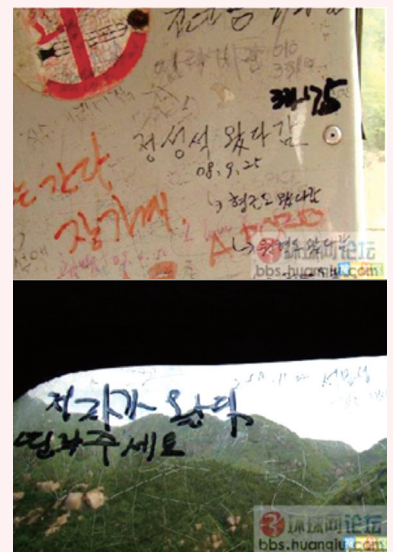


한국인들이 단오제를 치르는 모습

사례2 팔달령 만리장성에서 낙서하는 한국인
웅장한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중국인들의 자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 12월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된 만리장성에 관한 사진 몇 장이 중국 네티즌들의 자존심을 크게 자극했다. 그것은 바

로 팔달령 만리장성의 케이블카에 도배된 한국어 낙서였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찾는 중국의 1호 명승지에 유독 한국어 낙서가 눈에 띄었다.

이 사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수준 낮은 공중도덕 의식’을 맹비난했다. 이 와중에 ‘chuniz’라는 닉네임을 지닌 어느 한국인 네티즌이 게시판에 영어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에게 사과한다. 낙서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중국의 인터넷이 더 이상 한국인의 이러한 나쁜 이미지를 확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중국과 우정을 맺고 싶고 중·한 양국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만리장성 케이블카에 도배된 한국어 낙서

사례3 베이징올림픽 마찰

2008년 7월 베이징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중·한 네티즌 사이에 또 한 차례의 싸움이 불붙은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 SBS 방송사에서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리허설을 녹화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방송한 데서 비롯되

었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의 많은 언론사가 큰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중국 네티즌들도 격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한국 언론을 올림픽에서 축출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7월 31일, SBS의 한 관계자가 그들은 이미 베이징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공식 사과했고 인터넷에 올린 관련 영상 자료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미디어 담당 관계자는 “개막식 리허설을 할 때 각 언론사들이 기기를 가지고 중계 테스트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올림픽의 관례와 미디어들과의 묵인된 합의에 따라 사전에 외부로 관련 영상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SBS의 행동은 올림픽 시작 이래 처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도를 인용하면서 한국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박분경(朴芬慶)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상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자국의 혈통을 가진 유명 인사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문물의 리스트까지 정리했다. 그 리스트에는 중국 고대의 4대 미녀 중 하나인 서시(西施), 중국 고대 저명한 약학자인 이시진(李時珍), 농구 스타 야오밍, 마오쩌둥, 단오절은 한국에서 기원 됐다는 주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의 성명에 의하면 조선일보는 상기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바 없을뿐더러 성균관대학교에 박분경이란 교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한국 네티즌 눈에 비친 중국

사례1 '대륙시리즈'

언제부턴가 한국의 인터넷에는 '대륙시리즈'라고 하는 '재미있고 독특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등장해 한국 네티즌들을 크게 웃겨 주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대륙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가거나 중국 현지에서 살면서 촬영한 중국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뜻한다.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한국인이 접해 보지 못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중국의 모습을 위주로 촬영된 것이어서 한국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데는 충분하다. 특히 아직 중국을 직접 가보지 못한 한국인에게는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는 것은 대륙시리즈가 지닌 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륙시리즈'가 과연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중국의 발전된 모습, 한국보다 나은 점도 많은데 한국에 비해 낙후되거나 미개한 모습만을 골라서 보여주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확산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한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분명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쑨원은 한국인’ 루머에 연루된 중국의 한 뉴스 웹사이트

사례4 “쑨원은 한국인” 루머

2008년 7월 중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중국 민주혁명의 선구자인 쑨원(孫文)은 한국인이라는 한국 대학교수의 연구결과 때문이다. 중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한국 조선일보의 보

이로써 ‘쑨원은 한국인’이란 말은 중국 네티즌이 고의로 지어낸 사실무근인 루머였다는 사실이 세인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밝혀졌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대륙시리즈



사례2 중 · 한 어업 분쟁

중국과 한국 간 어업 분쟁이 생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한국의 인천해경 소속 이경호 경사가 단속 임무 수행 중 중국 선원들의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008년 9월에도 목포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목숨을 잃었다. 그 외에 한국해경들이 소위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민들을 단속하다 제압에 실패하거나 칼, 낚, 해머 등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민들에 의해 중경상을 입은 사례도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했다. 이러한 어업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양국 네티즌들이 각종 댓글을 달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일례로 한국 인천 해경 피살 사건이 일어난 후,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고, 이를 접한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경찰이 중국의 일반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어떻게 잡힐 수 있냐”, “정당방위다” 등의 댓글을 달며 국수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어민들이 욕식을 부린 것”, “고의는 아니다” 등 반대성향의 글을 남기며 숨진 해경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불법 조업에 대

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성이 없는 중국인들의 심보는 대체 무엇인지”, “적반하장식의 댓글에 무척 화가 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황해(서해)에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소 겹쳐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놓고 아직 양국이 정식협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해경의 과잉단속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양국의 어업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민족주의에서 언론의 역할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은 비단 중국과 한국 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인터넷에 나타난 형태로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완벽하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데 여러 제한점이 따른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터넷 상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만 고집하고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발언을 하는 네티즌들이 있다 보니 적지 않은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징은 익명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점과 국경을 초월하는 전파력,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연동, 각종 세력에 의한 이용이 용이함 등을 꼽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여론을 잉태, 생성, 확산하는 중요한 원천과 근거지가 되고 있다. 특히 5억 명이 넘는 인터넷 사용자를 자랑하는 중국과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 처리속도를 확보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생긴 인터넷 분쟁이 더욱 빈번해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주의를 요할 것은 언론이 뜻하든

뜻하지 않든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의 형성·범람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나열한 분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어느 정도 네티즌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고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건의 발전 과정 중 일부 무책임한 언론은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이목 집중, 방문자 수 제고 등)을 달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와중에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사건에 가담하여 부채질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터넷 민족주의 성향을 가볍게 여겨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양국관계를 악화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건이 크게 번져 정치문제로 변신하게 된다면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민족주의 여론은 양국 간 외교협약의 정치문제 해결의 공간을 축소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과 사회의 안정에 불안 요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 · 한 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분명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국의 언론들은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민족주의 정서를 유발하기 쉬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국내외 관련 각 측의 관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사실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성적 분석과 공정한 보도 및 논평을 해야 한다. 그 외에 독자들이나 네티즌들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의 의혹을 해소하고 인터넷 민족주의 정서를 선동하는 언행을 비판해야 한다. 한 마디로 국민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